

지난봄에 ‘도시민 웰빙 농사교육’ 을 받고서

김 응 민 회원

인천 계양구 계산3동 / 제9기 도시민 웰빙 농사교육생

항상 봄이 되면 새록새록 새싹이 돋아나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쫓으면 도시 근교에서 농사 한 번 지어보는 것도 좋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다. 농사의 ‘농’ 자도 모르는 나는 중학교 때, 보리 베는 봉사활동에 가서 일은 안하고 보리밭에 뛰어 놀던 생각이 난다. 한 번은 대학교 때, 친구네 모내기 도와준다고 두서너 시간 흥내 내다 새참 나오니 잼싸게 보쌈에 막걸리 한 잔 두잔 하다가 술기운에 픽 쓰러져 한숨 자고 났더니 모심기가 끝나 집에 돌아 온 적도 있다.

나이가 40대를 훌쩍 넘다보니 미래도 준비하면서 전원생활을 생각하던 난 2006년 신문 광고를 보니 서울 용산 동부이촌동에 있는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주관하고 농림부에서 후원하는 ‘도시민 웰빙 농사교육’ 광고가 났다. 주말농장 텃밭이라도 해보겠다는 생각에 교육 신청을 하려 보니 도저히 시간이 안되어 그 해는 포기 했다.

기회를 놓치고 한 해가 지나 이제는 시간이 없더라도 꼭 배워 보겠다는 마음으로 2007년 4월에 4주 기간으로 ‘제9기 도시민 웰빙 농사교육’ 을 받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은 큰 농사도 아니고 텃밭 하나 짓는데 무슨 교육을 1주일에 8시간씩 4주간이나 받느냐고 했다.

워낙 농사에 문외한인 나는 ‘낮은 산을 등산하더라도 산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한다’ 는 일념으로 교육신청을 했고 농사는 씨만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예측은 맞아 들어갔다.

1주차 첫 날 21명의 교육생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40대는 세명 되는 것 같고 거의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70대 어른도 많았다.

명예퇴직자, 주말농장 운영자, 화원 사장님, 텃밭에 관심 있는 가정주부, 나와 같은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공통점은 농사교육을 받고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농사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첫 강의는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현황과 전원마을에 관련된 교육이었는데 처음에는 뭐다 아는 사실을 정리해 주는 듯한 내용이였다. 그런데 강의가 깊어질수록 전원마을 조성방법, 전원마을 관련 주택법 등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둘째 날에는 유기농사의 좋은 땅 만들기와 유기농법에 대한 강의였다.

농약을 주지 않고도 유기농법으로 텃밭을 가꾸는 방법을 배웠는데 농업기술이 경쟁력의 큰 축임을 느끼게 했다.

드디어 세 번 째날 강동구에 있는 ‘초록텃밭’ 에서 현장실습을 하는데 1인당 텃밭을 5평씩 주고 모종심기와 씨뿌리기를 배웠다. 교육받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한 건 이 때였다. 농사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의 실습을 한 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는 열성은 모두가 수능시험 이상이었다. 땅고르기와 밑거름주기, 이랑 만들기, 모종 고르기, 씨뿌리기, 계

절별 채소 가꾸기, 모종심기 등을 배우면서 농사의 기본이 중요함을 느꼈다. 이렇게 한 주를 지내다 보니 바쁜 와중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간의 스트레스도 싸~악 없어졌다.

2주차부터는 채소(잎, 뿌리, 열매) 재배기술 및 발작물 재배기술, 손쉬운 유실수(매실, 자두, 살구, 감)가꾸기를 배웠고 토요일에는 '초록텃밭'에 가서 병충해 방지 요령 등을 배우면서 모종으로 심은 상추 재배를 했더니 농사도 취미로 하면 해 볼만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야외에 나가니 교육생 모두들 활기찼고 기분이 좋았는지 3주차 때는 실습을 마치고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비닐하우스 텃밭에 가서 삼겹살에 고량주 한잔씩 하니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느낌이었다.

이 외에도 전래 민간용 약초 및 조정수 꾸미기, 버섯 기술재배 등 다양한 농사방법을 배웠고 즉석에서 반장의 제안으로 '제9기 도시민 웰빙 농사교육' 모임을 결정하기로 한 후 1년에 2회 만남을 갖기로 했다. 첫 번째 모임은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여 양평군 수종면에서 농장운영하면서 전원생활을 하는 점잖은 분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4주차 마지막 날 교육생 모두는 교육 장소에 모여 경기도 광주에 있는 버섯재배연구소를 들러 버섯재배 과정을 들러 보고 농업과학관을 견학하였다. 버섯은 대량 생산과 시설이 중요한데 소량 재배는 어려워 경쟁력을 키우려면 쉽지 않지만 유통구조만 잘 구비된다면 FTA에도 살아 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 코스로 인천 부평에 있는 약초재배

를 하는 동낙농원에 갔는데 주인어른이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지 약초씨앗, 약초뿌리, 약초물 등을 듬뿍 듬뿍 주는데 역시 농사짓는 분들은 인정이 많구나 생각하면서 각박한 도시생활을 떠나 농촌의 맛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4주간 교육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도시민 웰빙 농사교육' 수료증을 받고 나니 농사경험은 없어도 이론으로 무장한 50%의 농민이 된 느낌이 들었다.

세상의 인심과 환경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농촌이 있는 한 우리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도시민들도 농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방송에서 오지의 탐험이나 다른 나라 생활체험을 보면서 그 나라의 풍습이나 생활을 보존하는게 경쟁력이다 생각하듯이 우리나라의 농촌을 살려야 도시민도 같이 공생공존 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에도 회원끼리 모여 수동계곡(남양주) 근처에 농장을 하는 회원 집에 모였지요. '웰빙 도시민농사교육' 멤버 13명이 모여 모처럼 야외에서 숯불갈비에 쇠주로 하루를 지냈답니다... 한참 정답게 얘기를 하는데 군산 야그가 나와 '나가 군산이 고향'이랬더니 회원 중 현직 대령 한 분도 고향이 군산 '동흥남동'이라나요? 아이구 반갑다고 악수하고 혹시 고등학교는? 워메 군산고등학교 문영만 선배님이 아니가벼... 군산남초(4회) 선배기도하고요... 어찌 반갑던지 같이 온 형수님께도 넘죽 인사하고... 회원 모두가 나보다 연배가 많아 조심스러웠는데... 술을 얼큰하게 마신 후 헤어졌지요... 56사단(서울 은평구)에서 근무하신다며 한 번 오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회원들 끼리 연락하고 텃밭가면 자주 만난답니다. ☺